

“정말 반가워”... 서귀포 홈플러스 한달여 만 재개장

13일 전국 홈플러스 67개 점포 정상 영업 시작
영업시간 전부터 입구 대기하는 고객들로 북적
일부 식료품·생필품 매대 비어... “정상화 기대”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방문하니 참 좋네요.”

13일 오전 서귀포시 동홍동의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서귀포점. 전국 홈플러스 67개점은 지난 7일 임시 개장을 거쳐 이날 본격 재개장을 시작했다.

서귀포점 건물 주차장에는 영업시간 전부터 긴 대기 줄이 이어졌다. 같은 시각 문이 닫힌 건물 입구에는 편안한 차림에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영업시간에 맞춰 문이 열리자 손님들은 쇼핑카트를 끌며 우르르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매장 내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손님을 반기는 직원들의 표정이 환했고, 빈 매대에 물건을 채우고 가격표를 붙이는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불이 꺼졌던 무인 셀프 계산대에서도 고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아내와 각각 카트를 끌던 김모(70)씨는 “바로 근처에 살아서 장은 매번 홈플러스에서 봤는데 사라져서 너무 아쉬웠다”며 “오랜만에 문을 열었으니 한가득 사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모(64)씨도 “물건 수가 적긴 한데 필요한 건 다 있는

것 같다”며 “오래 정상 영업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아직 빈 매대는 눈에 띄게 많았다. 일부 주스와 얼음, 냉동 과일 등은 모두 자체상품(PB)으로 채워져 있었다. 또 바디위시와 치약, 휴지 등 일부 생필품과 고추장 등 식품들은 상품의 종류가 1개로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생필품을 찾던 이모(70대)씨는

“바디위시도 비교하면서 사려고 했는데 종류가 하나뿐이고, 세탁비누도 안 보인다”며 “아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직원들은 재개장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한 직원은 “거의 한달 만에 정상 영업인데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와 한시를 놓인다”며 “다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주민분들이 다시 열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셔서 마음이 뭉클하다”고 했다.

입점업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눈치였다. 한 입점 의류

업체 사장은 “임시휴업했을 때도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지속 해 왔다. 재개장 이후에 손님이 늘지 지 금으로선 확산하기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홈플러스 강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노동자와 입점상인, 고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홈플러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인 13일 오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서귀포점을 찾은 고객들이 계산대에서 대기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4일 금요일 음 7월 2일 (9월)

기상 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5℃, 낮 최고기온은 30-31℃로 예상된다. 저녁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으며, 당분간 해안가 너울에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30%
30%	성산	30%
30%	고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4/30℃
모레	흐리고 비 25/30℃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 5개 정당 “아파트 의혹 철저 진상규명을”

어제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제주 5개 정당이 투자 사기·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제주의 아파트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유착과 패거리 정치의 관습을 끊어내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제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유사수신,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얹히고설킨 사건”이라며 “도민들의 의혹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경찰 진담수사팀은 수사력을 집중해 각 사안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고도제한 완화, 빠른 인허가 과정 등에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문대림 국회의원, 도의원들의 개입 가능성이 정황상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권과 관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 전 지사 측 보좌관과 문 의원 측에 대한 금품수수 및 조직적 당원 모집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이 공개된 상황에서 금품의 출처와 전달 경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청탁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정기자

초등생 대상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개최

15~16일 제5회 성산조개바당 축제

자치경찰, 24~내달 18일 접수

제주자치경찰단은 ‘제3회 교통안전 공감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작품 접수는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교통안전 실천 방안’이다. 보행안전, 안전벨트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작품은 4절지(394×545mm)

크기의 포스터 형태로 내면 되고, 표현 기법과 색상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심사한다.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 등 모두 20명을 시상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유리기자

조개잡기·고망납시 등 다채

제5회 성산조개바당축제가 15~16일 성산 내수면 모래갯벌과 광치기 해변 일대에서 개최된다.

13일 서귀포시 성산읍에 따르면 성산을 내수면은 94만3000㎡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는 제주 유일의 갯벌이다.

축제 첫날인 15일에는 초청 가수 윤수현, 김산하, 전민정, 이소정의 신

나는 무대가 펼쳐져 분위기를 달군다. 또한 성산의 자연과 생태, 조개잡이 문화, 그리고 바다와 사람의 공존을 형상화한 드론 라이트 쇼가 성산 내수면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개막식을 장식한다.

축제 둘째 날인 16일에는 노래자랑과 동아리 공연이 마련된다. 마지막 무대로 초청 가수 김지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막을 내린다.

백유타기자 haru@ihalla.com



제81주년 광복절

빛으로 이어온 81년,
도민과 함께 여는 제주의 미래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의미와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